

해외출장보고서

중국 파프리카 생산 및 유통현황 파악과 시장조사를 위한 출장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출장목적

- 중국의 파프리카 재배단지 및 산지전문시장을 방문하여 중국의 파프리카 생산현황과 유통실태 파악
- 중국의 대도시 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를 방문하여 파프리카 취급실태 및 소비자가격 조사
- 한국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가능성 파악과 수출을 위한 조건 파악

2. 출장자

- 초청연구원 김원태(농업관측정보센터)

3. 출장기간: 2008. 6. 25 - 6. 28(3박 4일)

4. 출장지역: 중국 제남시 상허현, 수광시, 청도시, 상해시

5. 출장결과: 별첨.

출 장 보 고 서

I. 출장개요

1. 출장건명: 중국 파프리카 생산 및 유통현황 파악과 시장조사를 위한 출장

2. 출장목적

- 중국 파프리카 생산시설 및 전문시장을 방문하여 생산 및 유통실태 파악
- 중국 대도시 대형유통업체 방문하여 파프리카 취급실태 및 소비자가격 조사
- 한국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가능성 파악 및 수출을 위한 조건 등 파악

3. 출장기간

- 2008년 6월 25일(수)~6월 28일(토)(3박 4일간)

4. 출장자

- 김원태: 초청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과채팀

5. 출장 세부일정

	이동	방문기관	일정 및 면담
6.25(수)	인천→제남 →수광	商南农贸 有限公司	· 중국 파프리카 전문시장 조사 · 면담자: 李延春 사장
		流里镇 甜椒基地	· 수광시 파프리카 생산기지 방문 · 산지집무시장 조사
6.26(목)	수광 →청도	수광채소 산업협회	· 수광시 파프리카 생산현황 · 면담자: 潘子龙회장
		宏丰种苗基地	· 수광시 파프리카 종자 및 육묘 판매현황 · 면담자: 杨炳光총경리
6.27(금)	청도 →상해	까르푸, JUSCO	· 대형유통업체 파프리카 판매현황 조사
		aT센터 상해지사	· 중국 파프리카 현황, 한국산 수출가능성 조사 · 면담자: 김진섭과장
6.28(토)	상해 →인천	PARKSON 백화점	· 백화점 파프리카 판매현황, 한국산 판매가능성 · 면담자: 黄祈平식품부매니저
		까르푸	· 대형유통업체 파프리카 판매현황 조사

II. 주요출장결과

1. 중국의 파프리카 현황

1.1. 생산동향

- 중국에서 파프리카는 方椒, 彩椒, 甜椒 등 여러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산지에서는 피망(青圓椒)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음.
- 중국의 파프리카(彩椒) 재배면적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확한 통계는 집계되지 않고 있음. 2007년 aT센터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파프리카 재배면적은 2003년 2,017ha에서 2004년에는 2,353ha로 17% 증가하였으나 2005년은 기후불순과 가격이 낮아 2003년 수준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2006년은 2,690ha로 증가하여 연평균 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¹⁾.
- 중국의 파프리카 생산량은 관리수준, 병충해, 날씨 등의 영향과 기술수준이 낮아 생산효율성이 떨어지는 편임. 2003년 생산량은 12만 톤에서 2004년 15만 톤으로 25% 증가하였으나 2005년은 재배면적이 줄어 13만 톤으로 2004년보다 13% 감소하였음. 2006년에는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 2005년보다 31% 증가한 17만 톤이 생산되었음.
- 중국 파프리카의 10a당 평균단수는 생산기술이 낮아 2003년 5,950kg에서 2006년 6,320kg으로 6% 증가하였음. 이를 평당 수확량으로 환산하면 1평에 21.1kg으로 국내 평균 단수보다 매우 낮은 상태임.

표 1. 중국의 파프리카 생산현황

단위: ha, 만톤, kg/10a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재배면적	2,017	2,353	2,017	2,690
생산량	12	15	13	17
단수	5,950	6,374	6,446	6,320

1) aT센터 상해지사 관계자 면담결과 중국 파프리카 현황자료는 중국내 정보업체에 중국 파프리카 현황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업체에서 중국 농업부정보중심 관계자를 통해 얻어낸 내부자료임.

- 중국의 파프리카 주산지는 산둥성과 하북성으로 이 두 지역의 재배면적이 중국 전체 재배면적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표 2. 2006년 중국 파프리카 주산지 현황

단위: ha

산둥	하북	운남	해남	기타
1,076	673	269	215	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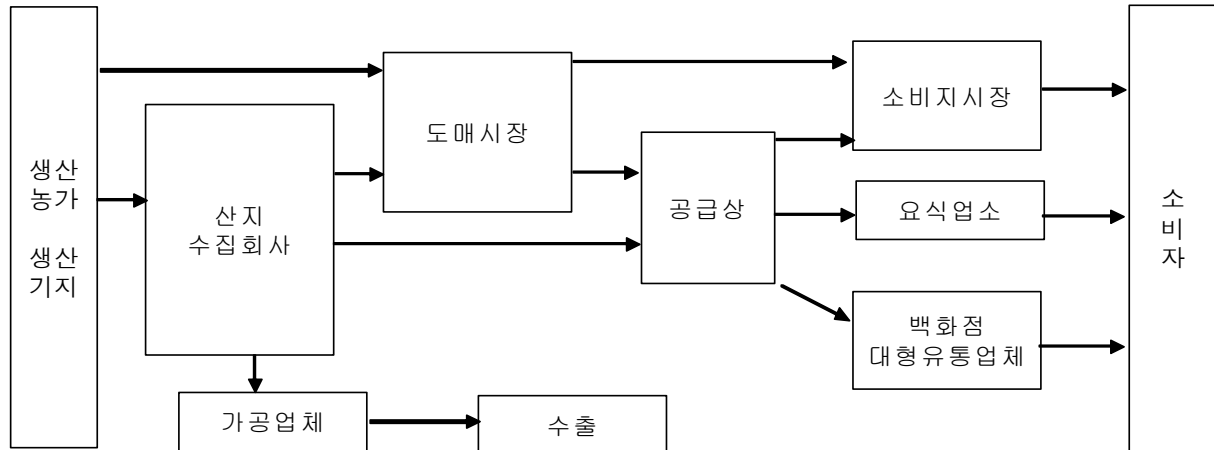
- 중국 파프리카의 작형은 3월에 정식하여 5~6월에 수확하는 작형과 8월에 정식하여 이듬해 6월까지 수확하는 봄작형과 가을작형으로 구분되며 주 수확시기는 9~11월임.
 - 주로 다평과 같은 온실에서 재배되지만 일부 남부지방은 노지에서 재배하기도 하며 온실재배용 품종은 네덜란드산이 주를 이루고 노지재배는 이스라엘 또는 스페인 품종이 대부분임.
- 재배형태는 온실바닥을 30cm 정도 파내려간 뒤 이랑을 세워 45cm 간격으로 정식을 하며 온실높이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m까지 성장함.
 - 중국의 거래방법이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품질관리보다는 다수확 품종을 위주로 정식하고 있으며 비료와 농약사용에 대한 관리는 크게 미흡한 상태임.

1.2. 유통구조

- 중국 파프리카의 유통경로는 일반 채소와 비슷하여 재배기지에서 가공업체나 요식업소로 직접 배송하거나 수집회사로 판매되며 수집회사는 이를 도매시장으로 출하하게 됨. 도매시장 이후의 유통경로는 일반채소와 유사하여 소매상을 거쳐 일반소비자에게 전달됨.
- 파프리카의 유통경로 중 가공업체는 일부 빨간색 파프리카를 분쇄하여 고추가루 대용으로 김치공장에 납품하고 있으며 파프리카를 1/4로 절단한 후 냉동하여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하기도 함.

- 상해시 대형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파프리카는 대도시 인근 전문농업회사에서 수확된 후 공급업체에서 소포장을 거쳐 유통되고 있음.

그림 1. 중국의 파프리카 유통경로



- 중국의 파프리카는 유통경로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여 산지에서 수확된 파프리카가 소비지로 수송되는 도중 감모·손실되는 부분이 많고 지역별 수요량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고 파프리카 전문 취급상인도 부족하여 지역에 따라 공급과잉(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가격의 변동폭이 매우 큰 특징이 있음.
- 한편 산지의 마케팅 능력도 부족하여 수확후 직접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비중이 매우 낮으며 대부분 산지수집상이 구매하기만을 기다리다가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는 등 시장대응능력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

1.3. 가격동향

- 중국 파프리카의 주요 고객층은 요식업체와 가공업체임. 그러나 최근 중국의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 증대와 신선채소 소비급증에 따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계소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의 파프리카 산지가격은 인근 도매시장의 가격을 기준으로 생산자와 수집업자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수확시기와 색깔에 따라 다르지만 산지수집시장을 기준으로 연평균 빨간색은 1kg에 3원 50전 내외이며 노란색과 오렌지색은 1kg에 3원 내외로 거래되고 있음.

- 상해시나 광주시 등 대도시 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파프리카의 소매가격은 1kg에 40~45元に 판매되고 있으며 유기농파프리카는 1kg에 50~54元に 판매되고 있음.

1.4. 소비동향

- 중국인은 주로 무게가 200~250g 사이에 크기가 큰 L사이즈의 파프리카를 선호하며 녹색이나 빨간색은 식재료용으로 사용하고 노란색이나 주황색은 생식용으로도 섭취하고 있음.
- 중국의 파프리카 요식업소의 소비와 일반가정용 소비로 구분되며 소비시기는 주수확기인 9~11월에 집중됨.
- 요식업소 소비는 식재료와 샐러드용으로 소비되며 중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외식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요식업소의 파프리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요식업소용 파프리카는 일반소비용 파프리카에 비해 고급품을 사용하고 있음.
- 가정용 소비는 현지 채소시장과 할인매장에서 구매하며 채소시장은 벌크형태로 판매되고 할인매장 또는 대형유통업체는 2~3개 소포장 형태로도 판매하고 있음. 주 소비용도는 샐러드 등 식재료이지만 일부에서는 생식용으로 구매하기도 함.
 - 중국인들이 붉은색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가정용 파프리카도 빨간색 위주에 노란색이나 주황색이 혼입되는 형태로 판매되고 있음.

2. 산동성 파프리카 현황

2.1. 제남시 상하현 상남농무유한공사

- 2003년 4월에 설립된 파프리카 전문시장으로 채소시장, 과일시장, 집무시장을 보유하고 있음.

- 온실(대풍)의 채소생산 면적은 50무이고 표준 채소온실은 30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온실에서 여러 품종의 파프리카를 재배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음. 리옌춘(李延春)사장은 파프리카 농가에게 종자, 기술 등을 서비스하고 생산 후 판매를 책임지는 일종의 인간관계형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음.
- 이 농장은 당나귀의 분변으로 메탄가스를 생산하여 보온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메탄가스 찌꺼기는 무공해 비료로 채소에 시비하고 있음.
- 산동성의 파프리카 취급시장 중 상남농무유한공사의 취급규모가 가장 많으나 현재는 작기가 종료된 상태여서 거래량이 극히 적음.
- 파프리카 거래는 새벽 4시에 시작되며 저울로 무게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고 있음. 연간 취급규모는 약 3만 톤으로 산동성 최대의 파프리카 전문시장임.
- “상정(商晶)”표 파프리카는 인지도가 북경(北京), 천진(天津), 상해(上海), 항주(杭州) 등 대·중도시에 공급되고 있음.
- 산동성의 파프리카 재배면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생산량은 기상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2007년에는 기상이 나빠 수확량이 많지 않았음.

2.2. 수광시채소산업협회

- 수광시채소산업협회 潘子龙회장은 수광시의 농정을 책임지던 국장급 고위공무원이었으며 퇴임 후 수광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채소산업협회를 결성하였음.
- 수광시의 파프리카를 비롯한 피망류 재배면적은 약 1,300ha이며 연평균 15만 톤을 수확하고 있음. 품종은 주로 네덜란드산을 사용하며 일부 이스라엘 종자를 수입하여 사용하기도 함.
- 수광시의 주 정식시기는 8~9월이며 12~익년 7월까지 수확이 이루어지며 비닐하우스 1무에 약 370kg을 수확하고 있음. 수확량은 녹색이 가장 많으며 나머지 색깔이 있는 파프리카는 생산량이 비슷한 수준임.
- 개별농가에 따라 재배방법이 다르며 비료, 농약 투입시기와 투입량 역시 제각각으로 통일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음. 이는 파프리카의 거래가 무게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일부 고품질 파프리카 생산농가는 비료와 농약투입에 대한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기도 함.

- 파프리카의 가격은 여름철엔 낮고 겨울철에 높은 수준이며 연평균 1kg에 3元을 유지하고 있음.

사진 1. 수광시 파프리카 재배온실과 선별작업



- 파프리카의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되면 녹색일 때 수확하여 판매하기도 하며 가격이 하락하면 착색된 후 판매하고 있음. 수광시에서 파프리카는 다른 작물에 비해 수익이 높은 고소득 작목으로 해마다 면적이 10% 내외 증가하는 추세임.
- 수확된 파프리카는 수집시장 또는 집무시장에서 고급, 중급으로 선별하여 비닐 포장하여 출하하며 큰 광주리 하나에 보통 50kg이 포장되고 있음.
- 수확된 파프리카는 심양, 광주, 홍콩 등으로 배송되며 일부는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되기도 함.

사진 2. 파프리카 산지포장형태 및 적재된 파프리카



2.3. 寿光市 流里镇 파프리카 수집시장

- 빨간색, 노란색, 오렌지색 파프리카를 전문으로 수집하여 인근 일조시 피발시장으로 배송하는 수광시 류리진에 위치하고 있는 피망류 전문 산지수집시장임.
- 1일 15톤 규모의 파프리카와 피망을 취급하며 산지에서 비닐봉지나 광주리에 담아 온 파프리카를 시장 앞 공터에서 크기별로 선별한 뒤 색깔별로 대형 비닐봉지에 50kg 단위로 포장하여 인근 일조시 피발시장으로 배송하고 있음.
- 피발시장으로 배송된 파프리카는 가공공장에 판매되거나 상해, 광주, 홍콩 등으로 배송되고 있으며, 가공공장으로 판매된 파프리카 가운데 일부 빨간색은 가루로 분쇄되어 고춧가루 대용으로 사용되며 대부분 1/4 크기로 절단한 후 냉동하여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되고 있음.
- 수집시장에 출하하고 있는 인근 농가는 작년 8월에 주당 45cm 간격으로 정식 하였으며 보통 줄기는 '다평'이라는 온실의 천장에 줄을 매달아 유인하여 넝쿨 길이가 2m까지는 자람. 한 작기에 5~6회 수확하고 있으며 200평에 연간 500kg을 수확하고 있음.
- 판매가격은 작년까지 1kg에 3원 가량 판매되었으나 현재는 출하 끝물로 품질이 현저히 떨어져 2원 20전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사진 3. 수광시 류리진 파프리카 수집시장



2.4. 수광시 宏丰种苗基地

- 수광시에 있는 파프리카 및 토마토 전문육묘장으로 1작기에 파프리카 묘주를 평균 50만주 가량 공급하고 있음. 주 품종은 네덜란드계인 四持红으로 연평균 약 100만주를 공급하고 있는 대형육묘장임.

사진 4. 수광시 파프리카 육묘기지



- 봄작기는 3월 이전에 판매되고 가을작기는 9월 이전에 판매가 완료되며 비닐 하우스 1무에 약 2천그루가 정식되는데 묘주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방문 당시 파프리카 묘종은 이미 판매된 상태였으며 수광시에만 이런 규모의 육묘장이 100개 내외가 있다고 함.

3. 한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가능성

3.1. 청도의 대형유통업체

- JUSCO 청도점은 청도시 중심가에 위치한 일본계 고급백화점으로 주변 빌딩 및 고급아파트 주민 등 중고소득계층이 주요 소비층임.
- 까르푸 청도점 역시 청도시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외국인 밀집 주거지역이 존재하고 있음.
- 청도시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파프리카는 색깔이 혼입되어 있는 2~3개 소포장이 대부분이며 1kg당 기준가격을 책정한 후 소포장의 무게에 따라 판매

가격을 설정하는 형태임.

- 주스코 청도점의 파프리카 판매가격은 1kg에 13.6元이었고 까르푸 청도점의 판매가격은 1kg에 9.4元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 청도시에서는 주스코가 까르푸보다 고급유통업체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 상품의 질이나 서비스도 주스코가 우수하다는 평임.
- 청도시 대형유통업체의 파프리카 고객은 청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샐러드용이나 생식용으로 파프리카를 구입한다고 함. 일부 인근 요식업소에서 재료가 부족할 경우 구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은 대부분 인근 시장에서 벌크 형태로 구매한다고 함.
- 청도시 대형유통업체의 채소담당 직원에 따르면 한국산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국산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청도에서 판매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함.

사진 5. 청도시 대형유통업체 파프리카 가격



< 까르푸 9.4元 >



< 주스코 13.6元 >

3.2. 상해의 대형유통업체

- 상해시 百盛(PARKSON)백화점 Hongqiao점은 중국 북경에 본사를 두고 중국에 30개 지점을 거느린 대형백화점임.
- parkson백화점의 식품매장은 소규모이며 파프리카는 냉장진열대 중앙에 진열

되어 있었음. 색깔이 혼입된 2개 소포장으로 진열되어 있으며 가격은 일반 파프리카는 1kg에 47.8元, 유기농파프리카 54元으로 매우 높은 편임.

- 백화점의 채소부문 매니저를 면담한 결과 백화점에서 파프리카는 1일 10개 이상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고 함. 주로 외국인이 샐러드용으로 구매하며 인근의 고급 요식업체에서 긴급히 재료를 구할 때 가끔 이용한다고 함.
- 상해 인근 파프리카 농장에서 주로 공급되며 겨울철에는 광둥에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벤더가 품질관리를 전담할 뿐 농약사용이나 비료사용에 대한 기준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음.
- 한국산 파프리카는 아직 접해보지 못했으며 수입개방까지 상당한 시일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백화점은 벤더를 통해 공급받고 있는 체제이므로 백화점보다는 벤더업체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 벤더업체를 통해 수 차례 한국산 파프리카의 관측행사를 개최하여 그 반응이 좋다면 백화점에서 판매할 용의는 있으나 그 성공여부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음.

사진 6. 상해시 parkson백화점 파프리카 가격



< 일반 소포장 47.8元 >



< 유기농 파프리카 54元 >

- 상해시 중심가에 위치한 까르푸는 청도와는 달리 3층 규모의 대형매장으로 상해시민 사이에 고급유통업체로 인식되고 있음.
- 상해시 까르푸는 식품매장 규모가 parkson백화점보다 넓어 매대에 벌크형태

로 전시하여 판매하기도 하며 색깔이 혼입된 소포장 형태로 진열하여 판매하기도 함.

- 까르푸의 1kg당 판매가격은 벌크판매 파프리카 13.6元, 소포장 파프리카 45元, 유기농파프리카 50元으로 parkson백화점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 채소담당 직원 면담에 의하면 까르푸는 본사를 통해 모든 상품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파프리카를 취급하기 위해선 본사 구매담당과의 협의가 우선이라고 함.

사진 7. 상해시 까르푸 파프리카 가격



< 벌크 13.6元 >



< 일반소포장 45元 >



< 유기농 50元 >

3.3. aT센터 상해지사

- aT센터 상해지사에서 근무하는 담당자에 의하면 한국산 파프리카가 중국에 수입되기 위해서는 현재 검역관계로 중단되어 있는 중국시장의 개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함.
- 한국산 파프리카가 품질이 우수한 것은 인정하지만 중국의 일반소비자들이 구매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며 따라서 고소득 소비층을 대상으로 구매 전략을 세워야 함.
 - 중국의 고소득 소비층을 공략하기 위해 백화점 등 고급유통업체나 고급요식업소에 납품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들 업소에 납품할 수 있는 전문도매상을 발굴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 한편 한국산 파프리카가 중국에 수입될 경우 한국시장도 개방되어야 하는 바, 저렴한 가격의 중국산 파프리카가 오히려 국내시장에 수입되어 국내 파프리카

산업의 기반을 위협할 수도 있음.

- 중국산 파프리카의 품질이 낮은 것은 단순히 무게 단위로 거래되므로 중국 농가에서 품질보다는 무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며 품질을 향상시킬 능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특히 한국 시장이 개방된다면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한국 기준에 맞게 파프리카를 재배하여 수출할 수 있는 전문기지는 매우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고소득층 공략도 중요하지만 중국과 파프리카 시장이 개방되었을 때의 경제적 효용을 우선 분석하여 대비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지적되었음.

○ 한국산 파프리카가 중국 고급유통업체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절한 바이어를 발굴하고 그 바이어를 통해 중국의 유통망을 확보한 후 한국산 파프리카의 판촉행사를 개최하여 소비자의 반응을 살피는 순서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이마트, 롯데마트 등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유통업체의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시사점

4.1. 중국시장 개척

○ 중국의 파프리카를 포함한 단고추류는 수 많은 재배기지에서도 소규모 농가에 의해 재배되고 있으며 철저한 품질관리보다 수확량에 중점을 두는 무게단위의 판매방법을 선택하고 있어 품질신뢰도가 매우 낮은 상태임.

○ 중국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고소득층이 국내인구와 비슷할 정도로 잠재력이 큰 시장이지만 아직도 파프리카 등 고급채소에 대한 인식이 미미하며 파프리카의 소비주체도 가정소비보다는 요식업소에서 주로 소비되고 있음.

○ 그러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국내 단고추류 소비패턴이 식재료용 채소의 개념에서 생식용 소비로 전환되고 있음. 특히 상해시와 광주시의 고급백화점도 고

가의 소포장 파프리카가 하루에 10개 이상 꾸준히 판매되고 있음.

- 한편 대형유통업체의 파프리카 판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비추어 볼 때 중국의 파프리카도 향후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의 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 파프리카 구매담당자는 인근 산지에서 생산된 파프리카를 벤더를 통해 공급받고 있으며 검역조건의 제한으로 현재 한국산 파프리카의 입점계획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러나 검역조건이 완화되고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면 현지 벤더를 통해 한국산 파프리카의 판촉행사를 개최할 용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남. 판촉행사를 여러차례 개최하여 소비자의 반응이 좋을 경우 한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백화점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2. 국내의 대응

○ 중국의 파프리카는 품질은 좋지 않지만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파프리카시장이 개방되면 값 싼 중국산 파프리카의 국내 반입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음.

- 중국의 파프리카 품질이 국내산보다 열악한 것이 현실이지만 이는 중국내의 거래단위가 품질보다 무게이기 때문에 수확량 증대에 중점을 둔 측면이 큼. 따라서 중국 산지에서도 대한국 수출기지를 조성하여 철저하게 품질을 관리한다면 국내산과 비슷한 수준의 파프리카를 생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중국과의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일본이 우리나라 파프리카에 대해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 농약사용관련 규제와 검역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중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수입개방을 일시적으로 늦추는 효과에 그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중국과의 파프리카 수입개방에 대한 협의 이전에 국내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이 주는 경제적 효과와 중국산 파프리카의 국내 수입으로 인한 피해규모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협상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